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강 수 선

2014년 8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지도교수 김 민 호

강 수 선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강수선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홍재승

위 원

서명석

위 원

김민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8월



Relations among Perceived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Ego-resiliency and
Social Competency

Kang, Su Seo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ug. 2014



[국문초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강 수 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민호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부모를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감 세 변인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 (1971)의 이론에 근거한 이종현(2000), 김민옥(2012)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금옥(1998)이 개발

한 청소년용 사회적능력 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왕정희(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Atsushi, Hitoshi, Shinji 및 Motoyuki가 제작한 탄력성척도를 민동일(2007)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323명(남학생 169명, 여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와 모가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졌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중 사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및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교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및 감정조절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흥미와 관심이 다양하거나 감정조절을 잘 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모의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중요하고,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요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1) 언어통제 양식	3
1-1) 명령적 언어통제	4
1-2)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4
1-3)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4
2) 사회적 유능감	4
3) 자아탄력성	5
II. 이론적 배경	6
1. 언어통제 양식	6
1) 언어통제 양식의 개념	6
2) 언어통제 양식의 하위요인	11
2. 사회적 유능감	17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17
2)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21
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25
3. 자아탄력성	29

1) 자아탄력성의 개념	29
2)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33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35
4.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36
III. 연구방법	39
1. 연구대상	39
2. 측정도구	40
1) 언어통제 양식 척도	40
2) 사회적 유능감 척도	42
3) 자아탄력성 척도	43
3. 자료수집 절차	44
4. 자료 분석방법	44
IV. 연구결과	46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46
1) 기술통계	46
2) 상관관계	47
2.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51
1)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51
2)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53
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5
1) 부 지위지향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5

2) 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7
3) 모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8
4) 모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60
V. 논의 및 제언	63
1. 논의	63
2. 제언	68
참고문헌	71
Abstract	80
부 록	82
<부록 1> 설문지	82
<부록 2> 부-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92
<부록 3> 모-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94

표 목 차

<표 II-1> Gumperz의 언어통제 양식	12
<표 II-2>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23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표 III-2> 부모 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문항구성	41
<표 III-3> 부모 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42
<표 III-4> 사회적 유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43
<표 III-5>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44
<표 IV-1>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46
<표 IV-2> 부모 언어통제 양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	48
<표 IV-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52
<표 IV-4>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53
<표 IV-5> 부-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56
<표 IV-6> 부-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57
<표 IV-7> 모-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59
<표 IV-8> 모-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61

그 립 목 차

[그림 IV-1]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7
[그림 IV-2]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8
[그림 IV-3]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60
[그림 IV-4]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6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왕따와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오늘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잘 맺음으로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적응감이 뛰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 특히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는 그 이후 성인기의 부적응을 예언한다(Dodge, Asher, & Parkhurst, 1989). 심리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초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아동의 외적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자녀 관계(Clark & Ladd, 2000), 또는 부모의 양육방식(Ahmad, 2009; Miller, 1999; Montes, 2002; Pezzella, 2010)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동의 사회화의 첫 관문이요 최초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모의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것은 언어가 부모-자녀 관계 또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언어는 아동의 사회화의 중요한 변수로서, 아동은 언어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문화적 동일시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훈육에 관여하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Bernstein, 1971). 실제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양식일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높은 반면, 명령적 언어통제 양식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다(도혜숙, 1997; 이경희, 1993; 이종현, 2000; 채지현, 2010; 한윤희, 2012).

그러나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언어통제 양식 하에서 양육된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사회적 유능감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부모의 관심의 차이, 형제순위, 개인 및 가정의 위기, 가정 외 사회적 관계 등 많은 외적 변인들과 아동의 성격 특성, 학습능력 등 아동의 내적변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관심의 초점은 위기나 취약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강점이나 능력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집중되었고(Panter-Brick & Leckman, 2013),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들 쪽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학자들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Block & Kreman, 1996),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정애리, 2009; 허지연, 2004; 한현아, 2007)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유능감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아동의 내적변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애착형성, 혹은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단순 영향에 치중해 있다. 자아탄력성과의 상호작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드문 가운데,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백민정, 2011),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최미숙, 2014), 가정의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한현아, 2007)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 또한 향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의 방향

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제주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감 세 변인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언어통제 양식

언어통제 양식이란 아동을 훈육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적 통제방식으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역할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양식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Bernstein(1971)의 이론에 근거한 이종헌(2000), 김민옥

(2012)의 질문지를 재구성한 척도를 통해 분류된 양식이다. 언어통제 양식의 하위요인은 명령적 언어통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이다.

1-1) 명령적 언어통제

명령적 언어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거의 부여하지 않고 명령, 직접적 벌, 간접적 벌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배척, 철회, 수용하는 것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Bernstein(1971)의 이론에 근거한 이종현(2000), 김민옥(2012)의 질문지를 재구성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의 정도를 말한다.

1-2)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부여하되 아동의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언어적 통제로서 제한된 규칙,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Bernstein(1971)의 이론에 근거한 이종현(2000), 김민옥(2012)의 질문지를 재구성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의 정도를 말한다.

1-3)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동기, 의도, 성향)을 고려하여 역할재량권을 부여하는 언어적 통제로서, 아동지향적, 부모지향적, 타인지향적 통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Bernstein(1971)의 이론에 근거한 이종현(2000), 김민옥(2012)의 질문지를 재구성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의 정도를 말한다.

2)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이란 소속된 사회에서의 효율적 상호작용 속에서 올바른 구성원

으로 성장발달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조작적으로는 왕정희(2001)의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점사척도에서 얻은 점수의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이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인성적 특성이며 동시에 발달적 과정으로서, 내적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유연하게 기능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조작적으로는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가 개발한 Resilience Scale을 민동일(2007)이 번안·수정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의 정도를 말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에 관한 전반적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호관련성을 관련문헌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통제 양식

1) 언어통제 양식의 개념

언어통제 양식에 관한 이론은 Basil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론에서 출발하며, 그의 언어통제 양식 이론은 자신의 사회언어학적 이론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따라서 먼저 Bernstein의 사회언어학 이론에 입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Bernstein은 언어가 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며, 개인은 언어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구조에 동화되고 문화적 동일시를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언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문화는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서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관여하는 언어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였다(Bernstein, 1971; 1972).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말하는 모든 행동은 사회적 사건이며, 그 배경에는 개인의 역사가 있고, 그 뒤에는 그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역사가 있다(Hasan, 2001).

언어를 통해 문화가 전수되고 사회화되어가는 경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Bernstein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를 통제하는 데 서로 다른 맥락에서 말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하위문화의 차이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언어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회집단은 특정 언어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 언어양식은 그 사회양식을 형성하게 되는 순환관계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특정 언어양식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사회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Bernstein(1971; 1972)은 집단의 특정 언어양식을 ‘정교한 어법(elaborated code; 원래 formal code)’과 ‘제한된 어법(restricted code; 원래 public code)’으로 나누었다. 정교한 어법은 정확한 문법적 구조와 구문 규칙으로 구성되어 의미전달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이에 비해 제한된 어법은 단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종 불완전한 구문형태를 가진다. 그는 “이러한 어법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의 질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진다(Bernstein, 1971, p. 135).”고 하면서, 중산층에서는 정교한 어법과 제한된 어법 둘 다를 사용하지만, 하류층은 언어적 자원이 제한된 어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하류층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어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제한된 어법에서는 귀속된 사회의 지역적 문화적 동일시를 전제로 한 의미가 강조되고, 지위지향적 언어계획을 발달시키며, 문장구성의 선택 범위가 좁다. 또한 자기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개인중심의 ‘나’라는 말보다 집단중심의 ‘우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짧고 빈약한 문장구조를 지닌다. 반면 정교한 어법에서는 개인지향적 언어계획을 발달시킨다.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고무되고 ‘우리’라는 말보다 ‘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정교한 어법에서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언어의 선택범위가 넓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지닌다(Bernstein, 1971; 1972).

그는 가족 내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부모의 언어가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가족 내 세대, 연령, 성에 따른 역할에 의한 경계선의 강도, 역할의 융통성, 역할재량권(role discretion) 정도에 따라 지위지향적 가족(positional family)과 인성지향적 가족(person-oriented family)으로 분류하였다. 지위지향적 가족은 폐쇄적 의사소통 체계(closed communication system)을 가진다. 가족 내 지위에 따른 경계선이 경직되어 있고, 역할의 융통성이 적고

역할재량권이 엄격하여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영역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심리적 측면이나 내면의 동기를 탐색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역할과 지위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제한된 어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인성 지향적 가족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 체계(open communication system)를 가진다. 가족구성원들의 힘과 영향력이 개별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이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모가 아동의 사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아동 역시 부모의 사회화에 관여하게 된다. 가족역할체계나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재량권의 범위가 매우 융통성이 있다. 개인의 특성이나 의도가 강조되어지는 정교한 어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지위지향적 가족체계에서는 지위나 규칙이 강조됨으로써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제한되는 반면, 인성지향적 가족체계에서는 보다 폭넓고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을 취하게 된다.

Bernstein의 이러한 언어통제 양식은 어디까지나 언어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어체계에 따른 사회구조적 접근으로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구조화되는 한 방식이다(Moor, 2001). 즉, 언어는 문화를 전수하는 매개체로서, 언어의 형태는 개인의 행동을 방향지워 주고 그 행동의 방향은 다시 그 언어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의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한다는 사회언어학적 이론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Bernstein은 사회화 이론에 심리학적, 사회학적 및 인류학적 접근방식을 통합한 자신의 독특한 언어사회화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Bernstein(1971)은 그의 사회언어학적 이론에 의거하여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명령적 양식(imperative mode)과 대화에 의거한 통제(control based upon appeals)로 나누었다. 그리고 대화에 의거한 통제를 아동에게 주어지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다시 지위적 대화(positional appeals)와 인성적 대화(personal appeals)로 나누었다.

명령적 양식이란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나 의도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체벌이나 위협, 명령 등을 통하여 아동을 배척, 철회, 수용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입 다물어”, “나가”, 또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

는 것으로서, 제한적 어법을 사용한다.

반면에 대화란 아동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위적 대화는 아동의 가족 내 지위, 성, 연령, 사회적 규범 등 아동의 지위에 중점을 둔 규칙을 말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넌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니(연령지위 규범)?”, “남자는 울면 안 돼(성 지위 규범)..”, “우리 가문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하위문화 규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아니다(상하 관계 규범)” 등이다. 제한적 혹은 정교한 어법을 사용한다.

인성적 대화는 아동의 형식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의도, 동기, 특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에게 뽀뽀하기 싫어하는 줄 알지만,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할아버지는 너를 몹시 사랑하잖니? 뽀뽀해 드리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와 같은 것이다. 제한적 또는 정교한 어법을 사용한다.

이상에서 Bernstein(1971)의 언어통제 양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통제 양식에 관한 논의는 Chaffee, Gorden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Mass Communication 학자인 Chaffee(1973)는 가정에서의 언어를 개념지향적(concept-oriented; 토의지향적) 언어와 관계지향적(socio-oriented; 순종지향적) 언어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개념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에 관계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표면적인 대립을 회피함으로써 논쟁에서는 양보하고 자기억제를 할 것을 강요한다(김대하, 2006; 장준희, 2006). 개념지향적 언어와 관계지향적 언어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그는 가족의 의사소통양식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다원형은 개념지향성은 높고 관계지향성은 낮다. 둘째, 동의형은 개념지향성도 높고 관계지향성도 높다. 셋째, 보호형은 개념지향성은 낮고 관계지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방임형은 개념지향성도 높고 관계지향성도 낮다(김대하, 2006).

Chaffee가 분류한 개념지향적 언어는 Bernstein의 대화적 언어통제에 해당한다면, 관계지향적 언어는 명령적 언어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장준희, 2006). 그러나 그의 이론은 주로 집단 의사소통이나 가정에서의 정치적 토론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부모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한편 심리학자인 Gorden(1977)은 Rogers의 인간중심심리학 이론을 수정·보완하여 역동적 조력관계이론을 구축하였고(김인자 역, 1998), 이를 바탕으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을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으로 분류하였다(김인자 역, 1989). 너-전달법은 의사소통의 걸림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걸림돌은 크게 해결을 강요하는 메시지와 아동을 비하시키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결을 강요하는 메시지는 ①명령, ②위협이나 경고, ③설교나 훈계, ④해결책의 제안, 조언, ⑤강의, 논리적 논쟁의 전개 등으로서, 그 숨겨진 메시지는 “너는 너무 우둔해서 나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동을 비하시키는 메시지는 ⑥비판, 비난, ⑦칭찬, 동의, ⑧멸시, 욕설, ⑨분석, 진단, ⑩동정, 격려, ⑪캐묻기, 탐문 등으로서, 그 숨겨진 메시지는 “네가 잘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나-전달법은 ①아동의 행동에 대한 무비판적 서술, ②아동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③그 영향으로 인한 나의 감정으로 구성되어,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전적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변화하며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론과 Gorden의 조력관계이론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Gorden의 너-전달법은 Bernstein의 명령적 언어통제에 해당한다면, 나-전달은 대화적 언어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실제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

차이점을 본다면 Gorden의 조력관계이론은 부모역할훈련(PET)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부모를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어 부모교육이 매우 용이하다. Gorden을 중심으로 한 ET재단(Effectiveness Training, Incorporated)은 전 세계에 전문 강사를 배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교육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 거기 비해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이론은 전문교육용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의 적용도가 낮다.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론은 사회언어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Gorden의 조력관계이론은 인간중심적 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Gorden의 조력관계이론은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영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론은 부모의 언어가 아동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한다는 사회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영향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이론적 틀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Gorden은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을 너-전달과 나-전달의 두 가지로 구분한 데 비해 Bernstein은 명령적 언어통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적 언어통제로 구분하였고, 다음 절에서 후술되겠지만, 그것은 다시 Cook-Gumperz에 의해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Gorden의 조력관계이론에 기반한 부모역할훈련(PET)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교육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 하더라도,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언어통제 양식의 구분이 보다 정교한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이론을 선택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Bernstein의 초기의 사회언어학적 접근(sociolinguistic approach)은 많은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이후 거듭되는 이론적 보완이 있었지만, 현재 교육과 언어학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Moor, 2001). 국내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 주로 Bernstein의 언어통제 양식론과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의 관계(고정희, 1981; 문성희, 1982; 윤기옥, 1973; 이미경, 1984)에 관심을 가졌으나, 90년대에 이르면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도혜숙, 1997; 이경희, 1993; 이애리나, 1990; 정현희, 최경순, 1997)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후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김정선, 2004; 나현미, 2010; 백민정, 2011; 이미경, 2007; 임정숙, 2006)이 그의 이론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Bernstein(1971)의 언어통제 양식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개념을 정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란 아동을 훈육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적 통제방식으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역할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양식이다.

2) 언어통제 양식의 하위요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에 관한 Bernstein(1971)의 이론은 Cook-Gumperz에 의

해 더욱 구체화된다. Cook-Gumperz(1973)는 언어통제 양식에 관한 이론을 더욱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자녀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언어통제 양식의 다양한 하위양식을 제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Cook-Gumperz, 1973, 50-76).

<표 II-1> Cook-Gumperz(1973)의 부모 언어통제 양식

명령적 통제	명령(imperatives)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말로 지시하여 통제한다.	
	직접적 벌(direct punishment)	아동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벌을 가하는 것으로서, 항목 반복(categoric repetition), 강한 명령(commands), 언어적 벌(verbal punishment), 신체적 벌(physical punishment), 특권 상실(loss of privileges), 제거(removal)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적 벌(indirect punishment)	위협(threats)으로서, 물리적 혹은 다른 형태의 벌을 말로 제시한다.	
지위지향적 통제	제한된 규칙지향 (limited positional appeals)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말한다.	
	보편적 규칙지향 (universal positional appeals)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중점을 두고 말한다.	
	지위적 규칙지향 (status positional appeals)	자녀의 위치(성별, 나이)에 중점을 두고 말한다.	
	가족적 규칙지향 (family positional appeals)	어느 특정한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에 중점을 두고 말한다.	
인성지향적	아동지향적	인지적 대화 (child-oriented cogni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말한다.
		정의적 대화 (child-oriented affec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말한다.
		인지정의적 대화 (child-oriented cognitive affec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말한다.

인성지향적 통제	부 모 지 향 적	인지적 대화 (parent-oriented cogni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 혹은 부모의 입장 등을 인지적 측면을 강 조하여 말한다.
		정의적 대화 (parent-oriented affec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 혹은 부모의 입장 등에 관해 정의적인 측 면을 강조하여 말한다.
		인지정의적 대화 (parent-oriented cognitive affec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 혹은 부모의 입장 등에 관해 인지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말한다.
	타 인 지 향 적	인지적 대화(other-oriented cogni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 타인의 입장에 관해 인지적 측면을 강조 하여 말한다.
		정의적 대화(other-oriented affec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 타인의 입장에 관해 정의적인 측면을 강 조하여 말한다.
		인지정의적 대화 (other-oriented cognitive affective appeals)	자녀의 행동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타인의 입장에 관해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말한다.
	기 타 전 략	배상(reparation)	자녀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한다.
		양여(concessions)	자녀 행위에 보상과 같은 정적 유인 (incentives)을 제공하는 것이다. 설득 (persuasion), 특정 양여(specified concessions), 타협(bargains) 등이 이에 속한 다.
		회피(avoidance)	아동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부 모의 행위로서, 반복적 무행동(routine non-action), 예방적 행동(anticipatory action), 주의 돌리기(diversionary action), 의 례적 행동(ritualized action), 충고나 정보 요 청(asking for advice or information) 등이 이에 속한다.

<표 II-1>에서와 같이 Cook-Gumperz(1973)는 명령적 언어통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다시 세분화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명령적 양식이란 “원리의 전달보다는 단순한 강제성이 우선한다. 역할관계

에서 재량권은 최소화되고, 원리가 아닌 단순한 위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제한된 코드를 통해 이루어진다(Cook-Gumperz, 1973, 50)". 즉,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나 의도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체벌이나 위협, 명령 등을 통하여 아동을 배척, 철회, 수용한다.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제한적 어법을 사용한다. 명령, 직접적 벌, 간접적 벌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지위지향적 언어 통제는 아동의 지위에 중점을 둔 규칙을 말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동의 지위란 아동의 가족 내 지위, 성, 연령에 따른 지위적 규칙, 사회적 규범에 따른 보편적 규칙, 가정의 특수상황에 따른 가정적 규칙 등이다. 경우에 따라 제한적 어법과 정교한 어법을 사용한다. 제한된 규칙지향, 보편적 규칙지향, 지위적 규칙지향 등의 하위양식으로 나뉜다. 세 번째,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형식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의도, 동기, 특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제한적 또는 정교한 어법을 사용한다. 내용(정의적, 인지적)과 대상(아동, 부모, 타인)에 따라 분류된 통제 양식 및 기타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Cook-Gumperz(1973)의 언어통제양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명령적 언어통제에서 '명령'이라 함은 "조용히 해라", "나가"와 같이 설명 없이 자녀의 행동을 말로 통제하는 것이다. 벌에는 항목 반복(categoric repetition), 강한 명령(commands), 언어적 벌(verbal punishment), 신체적 벌(physical punishment), 특권 상실(loss of privileges), 제거(removal) 등이 사용된다. '항목 반복'이란 어떤 행동이 수정될 때 까지 반복 언급하는 것이다. '강한 명령'이란 부정적이며 갑작스럽고 거친 표현의 명령으로서 "입 닥쳐", "바보같이 굴지 마" 등과 같은 것이다. '언어적 벌'이란 "바보 같으니라구"와 같이, 자녀 행동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꾸짖는 것이다. '신체적 벌'이란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말한다. '특권상실'이란 "내일은 TV 못 보게 할 거야"와 같이 아동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우나 즐거움을 아동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거'란 부모가 TV를 끄고 아동을 침실로 보내는 것과 같이 문제 상황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 벌'이란 '위협'으로서 물리적 혹은 다른 형태의 벌을 말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에서 '제한된 규칙지향'이란 "이제 잠 잘 시간이야"와 같이,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 규칙지향이란 “흠치는 건 나쁜 것이야”와 같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위적 규칙지향’이란 자녀의 연령, 성별, 상하관계, 그리고 다른 제도적 권위에 의한 특정 지위를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가령 “모든 어린이들은 일곱 살이 되면 학교엘 가야 한단다(나이)”, “사나이 대장부가 울면 안 되지(성).”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상하관계).”, “경찰이 잡아갈 거야(기타 권위)” 등과 같다. ‘가족적 규칙지향’이란 “양반가문의 체통이 있는데 네가 그러면 쓰느냐”와 같이, 어느 특정한 가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에서 ‘아동지향적 인지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인지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가령 “학교에 안가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가 이에 속한다. ‘아동지향적 정의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가령 “숙제를 하고 놀면 기분이 개운하잖아”가 이에 속한다. ‘아동지향적 인지정의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가령 “학교에 안 가면 친구도 못 만나고 까막눈이 된단다.”가 이에 속한다. ‘부모지향적 인지적 대화’란 부모의 입장이나 자녀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인지적 내용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가령 “아빠도 깜빡 잊을 때가 있단다”가 이에 속한다. ‘부모지향적 정의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부모의 입장 등을 정의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가령 “네가 그러면 아빠가 서운하실거야.”가 이에 속한다. ‘부모지향적 인지정의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부모의 입장 등을 인지정의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가령 “네가 딸을 안하면 아빠가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알고 훗날 서운해 하실 거야”와 같은 말이다. ‘타인지향적 인지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타인의 입장을 인지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가령 “네가 꽃을 꺾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 않겠니?”가 이에 속한다. ‘타인지향적 인지정의적 대화’란 자녀의 행동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타인의 입장을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가령 “네가 물건을 훔쳐서 가게 아저씨가 돈을 손해 봐서 얼마나 속상하겠니?”와 같

은 말이다. ‘배상’이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네가 흠뻑이니까 가서 용서를 빌고 와야지.”와 같은 말이다. ‘양여’란 부정적 인센티브 대신 긍정적 인센티브를 아동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설탁’, ‘특정 양여’, ‘타협’이 속한다. ‘설탁’이란 아동을 구슬리거나 달래는 행동,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 ‘특정 양여’란 “그럼 5분 후에 자자”와 같이 제한된 시간 동안 규칙을 보류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시 규칙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타협’이란 “저녁을 다 먹고 나면 동화책을 읽어 줄게”와 같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여 서로 타협하는 것이다. ‘회피’란 아동으로 하여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 중 ‘반복적 무행동’이란 부모가 아동의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묵인하는 것이다. ‘예방적 행동’이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가령 어린 자녀가 부엌 타일 위에서 물이나 주스를 마시게 함으로써 흘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의 돌리기’란 문제를 회피하거나 예측하여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문제행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의례적 행동’이란 어떤 문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에게 일련의 특정 행동(두 가지 이상)을 고안하여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충고나 정보 요청’은 담임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수집할 때 까지 아동을 통제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에 관한 개념과 분류에 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방식으로서, 명령적 언어통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그리고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로 분류될 수 있다. 명령적 언어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거의 부여하지 않고 명령, 직접적 벌, 간접적 벌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배척, 철회, 수용하는 것이다.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부여하되, 아동의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통제로서, 제한된 규칙,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동기, 의도, 성향)을 고려하여 역할재량권을

부여하며, 아동지향적, 부모지향적, 타인지향적 통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유능감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감이 뛰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사회적 유능감은 바람직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Waters & Sroufe, 1983; 도혜숙, 1997).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학자들의 접근방식이 달라졌고, 그 범주나 영역이 변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대적 변천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을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규정과 함께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에 자연적인 또래집단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는데, 아동의 특성과 또래집단 속에서의 아동의 상대적 지위에 관한 연구였다(Ladd, 1999). 이 시기,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학자들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정신건강 및 적응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령 Roff(1961)는 초기와 중기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감은 성인기의 부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Dodge et al., 1989 재인용). 이 시기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정의는 개인과 그의 환경과의 성공적 상호작용으로서, 환경에 대한 적응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White(1959)는 사회적 유능감이란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능력이라고 기술하고, 이러한 능력은 본능적 동기를 가진 것이라고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을 생물학적 측면에서 파악했다(Rubin & Rose-Krasnor, 1992 재인용). 한편 Goldfried와 D’Zurilla(1969)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개인이 내리는 판단으로서

의 사회적 유능감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여러 가지 문제해결 상황에 직면하여 개인이 반응하는 능력의 효율성과 적합성으로 정의하였다(Dodge, Asher, & Parkhurst, 1989 재인용).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네 개의 단계로 명시하였는데, 첫째, 문제상황의 정의와 인식, 둘째,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의 도출, 최적의 방법 결정, 그리고 해결방법의 실시이다. 또한 Schaefer(1961)는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아동의 긍정적 속성을 온정성, 접근성, 외향성으로, 부정적 속성을 적대감, 회피성, 내향성으로 보고, 성격구조론적 관점으로 이해했다(한민경, 2003 재인용).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조류가 발전되었다. 이 시기의 조류를 O'Malley(1977)는 크게 동물행동학적 관점, 성격구조론적 관점, 사회적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이은영, 2008 재인용).

첫째, 동물행동학적 관점은 50년대에 시작되었던 조류로서 사회적 유능감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의 과정으로 보는 진화론적 관점이다. Gunzberg(1973)는 사회적 유능감이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관습과 행위의 기준에 동조하는 능력이라 하면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포함시켰다(한민경, 2003 재인용). White와 Kaban과 Attanucci(1979)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물질적, 정서적인 자원을 얻어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용해가는 능력으로 설명했다(한민경, 2003 재인용). 또한 Zigler와 Trikett(1978)는 사회적 유능감이란 개인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형식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학교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성인 및 다른 아동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이은영, 2008 재인용).

둘째, 성격구조론적 관점은 사회적 유능감을 여러 가지로 구성된 인성적 구조요인의 부가적 결과로 보는 것으로서, 인성구조 중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는 견해이다. Kohn과 Roseman(1972)은 사회적 유능감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과 개인의 특성을 비교 설명했다. 즉, 사회적 유능감이 있는 유아는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교사의 제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주장하는 반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위축되어 있고

관심이 부족하고, 비협조적이며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사회적 유능감을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Baumrind(1973)는 사회적 유능감을 우수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면서 그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반응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 등을 포함시켰다(이미경, 2007 재인용).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Ainsworth와 Bell(1974)은 사회적 능력을 타인에게서 협력을 얻어내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했다(이은영, 2008 재인용). 또한 Gresham(1981)은 사회적 유능감을 적응적 행동, 사회적 기술, 그리고 또래수용으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를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의 결과로 간주하였다(Gresham & Reschly, 1987 재인용). 그는 사회적 기술을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최대한 강화하고 벌을 감소시키고 우발적 사건을 소거시키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했다(Gresham, 1981, Gresham & Reschly, 1987 재인용).

1980년대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특정행동을 동료의 수용과 같은 상대적 구성개념과 관련짓고,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나 행동을 코칭하고 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장기적 부정적 결과의 위험에 잠재적으로 처한 아동들을 정의하고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령 Gresham과 Elliott(1984)는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한 아동들을 네 가지 결핍으로 보았는데, 즉, 사회적 기술결핍, 행동수행 결핍, 자기통제기술 결핍, 그리고 자기통제 수행 결핍이다. 여기서 사회적 기술결핍은 행동 수행에 대한 지식과 인지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그는 통제 수행결핍을 지닌 아동들은 자신들이 알고 이해하는 행동이나 기술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나친 불안과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980년대의 특징적 조류 중 하나는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적 접근이다. 이는 인지적 심리학의 정보처리모형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면서 Asher(1983), Dodge와 Pettit와 McClaskey와 Brown(1986), Rubin과 Krasnor, (1983), Gresham과 Elliott's(1984)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Asher(1983)는 사회적 유능감을 정보처리과정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적절성(relevance)의 차원으로서 사회적 상황을 인식

하고 적절하게 흐름에 맞추는 것이다. 또래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성공하여 또래집단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아동이 사회적 정보과정의 분석을 거쳐서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적응해가는 능력이다. 둘째는 반응성(responsiveness)의 차원으로서 타인의 개입을 제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셋째, 과정전망(process view)의 차원인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발전해 가고 변화하며 관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친구를 사귄 때도 성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놀이에 끼어드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유능감의 정보처리과정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Dodge 등(1986)은 사회적 상황을 하나의 특수한 장치로 설정하고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과정을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가 주장한 인지적 과정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즉, 사회적 자극, 자극에 대한 아동의 정보처리과정,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처리와 판단,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행동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단서를 코딩하는 과정,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는 과정, 자극에 대한 잠재적 반응을 회상하고 일반화하는 과정, 그리고 선택된 반응을 행동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그는 아동의 정보처리 능력을 평가하고 개입하려는 시도로서, 평가와 개입을 매우 명백하게 명시하였다.

Rubin과 Krasnor(1986, Rubin & Rose-Krasnor, 1992 재인용)는 사회적 행동은 자동적 사고로 반응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적 목표 선택, 환경적 검토, 전략의 평가와 선택, 전략의 적용, 그리고 전략의 결과 평가이다. 그들은 사회적 유능감이란 “여러 때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개인적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p. 285)”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을 정보처리모형에 접목하여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사회적 유능감의 정의와 평가는 열악한 관계망 속에서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의 위협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는 배척되거나 거부된 아동들에게 사회적 지식을 익히고 성

공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순히 사회적 기술훈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동의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은 인지적 사고에 초점을 둔 정보처리모형에서부터 생태학적 모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도 개인의 내적 과정 뿐 아니라 외부의 환경적 특성까지도 감안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Sheridan과 Hungelmann과 Maughan(1999)은 생태학적 평가를 권장하였다. 즉, 아동이 살고 있는 장면 안에서 사회적 기술을 정의하고, 물리적 환경적 주요 양상을 환경의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생태학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행동적 요구에 적합한 효율적인 중재전략과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원천, 다양한 장면을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은 역동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한파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접근 방법도 다양하고 관점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들 정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사회적 유능감이란 첫째, 인간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둘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이란 소속된 사회에서 효율적 상호작용 속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2)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그 접근방법에 따라, 정의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 역시 다양하다.

Anderson과 Messick(1974)은 다음과 같이 29개 요인으로 소개하고 있다(이순미, 2007 재인용). 즉, 자기관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민감성, 이해, 긍정적이고 애정있는 대인관계, 역할지각과 존중,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절력, 도덕성,

호기심과 탐구적 행동, 주의력 조절, 지각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대근육 운동기술, 지각운동 기술, 언어기술, 분류기술, 기억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기술, 문제 해결기술, 정보를 적절하게 다루는 융통성, 관계성에 대한 개념과 이해력, 일반적 지식, 유능감에 대한 동기, 학습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 학습과 학교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태도, 유머와 놀이와 상상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우 포괄적이며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요인이 너무 많고 방대하여 이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Gottman과 Gonso와 Rasmussen(1975)은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들은 사회적 기술을 여섯 가지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평가하였다. 여섯 가지 방법은 얼굴표정의 감정 분류, 참조적 의사소통에서의 정확한 단어사용 게임, 인지적 과제, 눈을 가리고 듣는 과제, 친구만들기 과제, 그리고 도움을 주는 과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실에서의 행동평가도 이루어졌고 관찰된 것은 기록되었다. 요약하면, 적절한 표정, 정확한 어휘구사, 인지능력, 청취능력, 사교능력, 도움을 주는 능력의 6개 요인이다.

Asher(1983)는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유능감을 적절성, 반응성, 과정전망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적절성은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흐름에 맞추는 것이며, 반응성은 타인의 개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과정전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의 발전과 변화성을 이해하는 지적능력이다.

Rydell과 Hagekull과 Bohlin(1997)은 사회적 유능감을 사회적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목표로 하는 항목들로 검사도구를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은 공감성, 이타성, 관용성, 유용성, 사회적 참여, 주도적 매력, 협동성, 그리고 갈등처리이다.

이 외에 Schaefer(1961)는 3개의 양극성 요인으로서 온정-적대성, 접근-회피성, 외향-내향성으로 보았다(한민경, 2003 재인용). Harvigurst(1968)는 독립성, 책임성, 협동성, 사교성, 창의성, 자기통제성, 계획성, 자기표현성, 경쟁성의 9개 요인으로 보았다(이은영, 2008 재인용). Kohn과 Rosman(1972)은 유아의 환경지배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를 고안하였다. 그 도구에서는 관심, 호기심,

단호함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이경희, 1993 재인용). 또한 Baumrind(1973)는 사회적 적응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의 4개 요인으로 보았다(이은영, 2008 재인용). Clark와 Crase(1984)는 부모나 타인, 친구에 대한 애정적 표현력, 협력성, 사려성,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쾌활성의 네 가지로 보았다(이은영, 2008 재인용). Waters와 Garber와 Gornal과 Vaughn(1983)은 사회적 기술, 또래참여, 활동성, 확신감, 지구력, 목적지향성의 6개 요인으로 보았다(이은영, 2008 재인용).

우리나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박금옥(1998)은 Buss와 Plomin(1984), Cassidy와 Asher(1992), Cheek와 Buss(1981), Kohn과 Rosman(1972), 도현심(1994), 노명희(1995), 이경희(1993) 등이 개발한 아동용 사회적 유능감 척도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만들고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외에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의 3요인(우수경, 2002; 이은영, 2008), 활동성, 협동성, 안정성의 3요인(김소영, 1999) 등이 있다.

이상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하위요인들을 비교적 공통항목들로 구성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 하면 <표 II-2>와 같다. 분류과정에서 공통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유목화하기 어려운 애매한 내용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II-2>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사교성 1)	친사 회성 2)	사회 참여 ³⁾	주도성 4)	목적 지향성 5)	독립성	인지적 능력	기타
Asher (1983)	적절성	반응성						과정전망
Baumrind (1973)		반응	활력		성취 지향	독립		
Clark & Crase (1984)	사람들 과 어울리는 쾌활성	애정적 표현 력, 사려성	협력성					
Gottman 등(1975)	친구 만들기		도움 주기				인지적 능력	감정분류, 청취능력, 정확한 단어 사용
Gresham (1981)	상호 작용	우호	우정					

Harvigurst (1968)	사교	협동		창의	독립	책임, 경쟁, 표현
Kohn과 Rosman (1972)			관심 참여 호기심	단호함		
Rydell 등 (1997)		협동, 공감, 이타, 관용	참여	주도적 매력		갈등 처리
Schaefer (1961)	외향	은정	접근			
Waters 등(1983)			참여, 활동	목적 지향		확신, 지구력
김소영 (1999)		협동	활동			안정
박금옥 (1998)	사교	대인 적응	참여	주도	인기	
우수경 (2002)	사교	협조		주도		

¹사교성: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며 친구를 쉽게 사귀는 특성

²친사회적특성: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적 특성

³사회참여도: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래들과의 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특성

⁴주도성: 자신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하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특성

⁵목적지향성: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적 특성

<표 II-2>를 볼 때,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요인은 친사회성과 사회참여도가 가장 많고, 사교성, 주도성, 그리고 목표지향성의 순이다. 박금옥(1998)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중 ‘인기도’는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Baumrind(1973)나 Waters, Garber, Gornal, 그리고 Vaughn(1983)이 제시한 ‘목적지향적 특성’(이은영, 2008 재인용)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유사성에 따라 동일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박금옥(1998)이 제시한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요인들을 가장 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금옥(1998)이 제시한 사교성, 대인

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5요인을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아동의 사회화에 부모는 최초의 관문이며 그 대상이다. 부모와의 애착형성(Ainsworth, 1979), 부모의 양육방식(Ahmad, 2009; Miller, 1999; Montes, 2002; Pezzella, 2010; Williams, 2010), 부모-자녀 관계(Clark & Ladd; 2000) 등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특히 언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화에 중요한 변수이며,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Bernstein, 1971). 이와 관련한 학자들의 주장과 실증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yant(1980)는 체벌을 사용한 양육방식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물리적 힘에 의한 강제적 힘의 사용은 아동에게 공포와 분노를 유발하여 이타성을 감소시키고, 질책과 비난을 사용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이다(Bryant, & Crockenberg, 1980 재인용). 이는 부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 부적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Baumrind(1991)는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권위적, 허용적, 독재적, 방임적 유형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학업성취, 향사회적 발달, 그리고 문제행동 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권위적 양육방식으로 양육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유능감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umrind, 1991; Miller, Cowan, Cowan, & Hetherington, 1993; Weiss & Schwarz, 1996). Pezzella(2010)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비행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청소년 모두에게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거나, 독재적 양육방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위기요인이 높은 백인 청소년에게 비행의 감소에 효과가 없음을 보고했다. Wolfradt와 Hempel과 Miles(2003)은 일

반고등학교 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방식과 청소년들의 몰개성화, 불안 및 대처행동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심리적 압력이 심한 양육 방식은 청소년들의 몰개성화 및 특성불안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들의 적극적 대처방식과는 정적상관이 있으나 상태불안과는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군집분석 결과, 독재적 양육집단은 몰개성화와 불안 점수가 가장 높았고, 권위적 양육집단과 허용적 양육집단은 적극적 대처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Ahmad(2009)는 팔레스타인의 아동들의 또래의 괴롭힘과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그 자녀들은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공격적으로 되지도 않았으나, 통제적인 어머니일수록 그 자녀들은 더욱 공격적이었다. Pezzella(2010)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비행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청소년 모두에게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거나, 독재적 양육방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위기요인이 높은 백인 청소년에게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 중 권위적이고 애정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결과와 관계가 있고, 독재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Baumrind(1991)의 권위적 양육방식이란 아동에게 아동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아동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통제 양식 중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관계를, 명령적 언어통제는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관심, 지지적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iske-Morris(2005)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으로 향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또래관계형성, 그리고 학교적응을 포함하였는데,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과 또래거부가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의 모니터링과 향사회적 행동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다. 즉,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비행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sieh(2009)는 타이완에 거주하는 중국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기아동기에서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걸쳐 종단연구를 한 결과, 지지적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 친밀감을 유의하게 예고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iller(1999)는 초등학교 4학년 및 5학년 아동 1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부모의 양육활동이 보다 촉진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친구들의 지지 역시 더 많은 것으로 지각했고, 담임선생님이 평가한 그들의 사회적 유능감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부모의 촉진적 양육활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ontes(2002)는 폭력과 향후 반사회행동의 위험이 있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그는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의 놀이 상황에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찍어 후에 코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교사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행동평가를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덜 적대적인 부모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온정적 부모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방식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또한 Clark과 Ladd(2000)는 부모-자녀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친구관계에서 조화의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갈등의 수준은 더욱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이들 결과들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명령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 등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방식은 언어적 양식으로 표현되고 양육방식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는 형성된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행동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독재적 양육방식이나 체벌 등은 꾸중, 비난, 명령 등을 수반하게 되므로 명령적 언어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저하시키는데 반해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희(1993)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주도성 및 개방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주도성, 사교성, 개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교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인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주도성 및 사교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상관이 있음을, 그리고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동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 언어통제 양식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언어통제 변인은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였다.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였으며,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변이를 5%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정현희와 최경순(1997)은 초등학교 5학년 340명(남157명, 여1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가 남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중 유능성과는 부적관계가 있고, 불안정성과는 정적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여아의 유능성, 지도력 및 부모에 대한 애정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유능성이나 지도력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양식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부모에 대한 애정에 대한 설명력은 유의하였다. 명령적 언어통제는 부적 유의성을, 지위적 언어통제는 정적 유의성을 가지며, 전체 설명력은 9%였다. 즉, 부모의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저하시키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임정숙(2006)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부적상관을 가지며, 다중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유의한 설명력은 가지지 못했다.

백민정(2011)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공통적으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정적상관을 가지며, 부모 공통적으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보다 더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도혜숙(1997)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아버지의 언어통제 양식이 인성지향적일 때 가장 높으며, 명령적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채지현(2010) 역시 아버지가 인성지향적일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며,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으로 알 수 있다. 국내연구 결과,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지위지향적 또는 인성지향적일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아지며, 명령적일 때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명령적 언어통제 양식일 때 보다 지위지향적 또는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양식일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을 나타내는 영어 ‘resilience’는 라틴어 ‘resiliere’에서 파생된 용어로 원래 금속의 유연성(elasticity)을 비유하여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온 것이다(Lazarus, 1993). 주철은 단단하지만 부러지기 쉽고, 연철은 잘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즉, 어떤 역경에서 개인이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비유하여 사용하는 말이다(Davydov, Stewart, Ritchie, & Chaudieu, 2010). 1990년대 이후 탄력성이란 용어는 심리학 뿐 아니라 의학,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Davydov, et al, 2010). 결과적으로 탄력성의 개념으로 인해 연구, 임상, 정책 등 많은 분야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관심의 초점은 위기나 취약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에서부터 강점이나 능력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Panter-Brick & Leckman, 2013). 즉, 아동 안에 잠재된 능력으로서의 탄력성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아동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보다는 강점이나 자원들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탄력성과 관련된 첫 연구는 1953년 128명의 정상 유아를 대상으로 탄력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종단적 연구였다. 연구를 통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때 예방효과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1976년 Murphy와 Moriarty는 탄력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재인용). 비슷한 시기에 Kauai의 종단연구에서 탄력성은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Werner & Smith, 1982; 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재인용).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용어는 Block과 Block(1980)에 의해 인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개념화되었고(Hofer, Eisenberg, & Reiser, 2010),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y)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는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강건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적응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자아탄력성은 기질적으로 ‘자아통제(ego-control)’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자아통제가 잘 기능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잘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Eisenberg, Spinrad, Fabes, Reiser, Cumberland, & Shepard, 2004; Martel, Nigg, Wong, Fitzgerald, Jester, &

Puttler, 2007).

여기서 자아탄력성과 함께 자아통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통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아통제란 자아의 여러 기능 중 충동조절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서적·동기적 추동을 내포하고 있다(Block & Kremen, 1996). 자아통제가 적절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으면 과다통제나 과소통제를 초래하게 된다. 과다통제란 지나친 통제로 인해 보상을 지연시키고, 행동을 조심하고, 환경적 장애를 차단하는 것을 말하고, 과소통제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보상을 지연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환경적 장애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자아통제는 조절을 목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능력을 자의로 사용하는 천성적인 경향이고, 자아탄력성이란 자아통제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자아조절의 양상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양과 질의 개념이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Ungar, 2005).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이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Block & Kremen, 1996), 개인의 자아통제를 변동시키는 역동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Rutter, 1987). 그리하여 높은 수준의 위험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아통제를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자들 간에는 자아탄력성에 관한 몇 가지 논란이 있어왔는데, 첫째, 특성인가 과정인가 하는 논란이다. 처음에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인성의 한 구성요소의 개념으로, 인성의 한 특성으로 파악되었다(Block & Block, 1980). 자기통제는 생의 초기에 빠르게 발달하며(Rothbart, 2007, Hofer, Eisenberg, & Reiser, 2010 재인용), 초기 기질은 일반적으로 성격특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고(Caspi, 1998, Hofer, Eisenberg, & Reiser, 2010 재인용),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천성적 성격특성으로 간주되었다. 그런가 하면, 모-자녀 프로젝트에 의해 탄력성을 유기체적이고 발달적 조망의 틀 안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개념화 되기도 하였다(Egeland, Carlson, & Sroufe, 1993). 특정 발달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개인과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발달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발달적 조망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보호요인과 아동의 적응 사이의 상호성, 그리고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아동의 발달수준과 발달적 기능을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아동의 탄력성은 정상적 인간의 적응과정으로서, 인지, 행동조절의 발달을 포함하고, 양육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된다(Masten, 2001). 그러나 특성이나 과정이나의 양자택일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선천적 특성으로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통해 탄력성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란 아동의 인성적 특성이며 동시에 과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곧 자기통제의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동기를 잘 조절하는 행동특성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자아통제가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쉬 회복될 것이 예견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보이며 문제를 내재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Eisenberg, Spinrad, Fabes, Reiser, Cumberland, & Shepard, 2004). 그리하여 자아통제가 자아탄력성을 예견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자아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4; Spinrad, Eisenberg, Cumberland, Fabes, Valiente, & Shepard, 2006). 그러나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와 외재화된 문제 사이를 매개한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artel, Nigg, Wong, Fitzgerald, Jester, 그리고 Puttler(2007)는 비록 자아탄력성이 내재화된 문제와 사회적 유능감을 예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재화를 예견하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에 자아통제와 관련된 실행적 기능은 외재화를 예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재화된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보다 충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곧 자아탄력성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비록 자아통제를 바탕에 두고 있으나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곧 자기통제의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아탄력성에 관한 여전한 논란들이 남아있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아탄력성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란 인성적 특성이며 동시에 발달적 과정으로서, 내적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유연하게 기능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2)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성격적 혹은 행동적 특성 및 학자들이 제시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Murphy와 Moriarty(1976)는 자신들의 종단연구 결과, 탄력적인 아동들은 입학하기 전부터 자율성이 강하고 친사회적이었으며, 가정 내에서도 활발하게 놀이를 하였고, 새로운 경험을 찾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자기 의지적이고, 응집력이 강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신이 자기를 돕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였다(김지은, 2003 재인용).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으며, 친구들에 의해 인기아가 되고, 친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즐기고,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할 줄 안다(Garmezy, 1983, 김민옥, 2012 재인용).

Block과 Block(1980)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고 통합된 수행을 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성격이 안정적이고 덜 의심하고 덜 불안하며, 셋째, 자기확신과 자기수용과 같은 자신감이 있고, 넷째, 창조성과 새로움 추구와 같이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융통성있는 적응을 보이며, 다섯째,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 여섯째, 유능하고 유창하고 영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Block과 Kreman(1996)에 의하면, 탄력적인 아동들은 친구들에게 관대하고, 충격에서 빨리 평정을 찾고, 새롭고 특이한 상황을 다루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활기차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낄 때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

Klohn(1996)의 연구에서는 탄력적인 아동들은 자신감 있는 낙천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적인 활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통찰력과 따뜻함을 지니고, 능숙한 자기표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지닌 아동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명확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lohn, 1996; Rutter, 1987). 박은희(1997)는 Klohn(1996)의 자아탄력성 검사문항을 재구성하여 5개 하위요인 즉,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과 관련된 대인관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활발하고 능동적인 접근을 하는 활력성,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정서경험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인 감정통제,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능력인 호기심,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낙관성의 5요인으로 보았다.

Atsushi, Hitoshi, Shinji, 그리고 Motoyuki(2002)의 자아 탄력성 하위요인과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으로 탄력적인 사람은 다양한 사물에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둘째, 감정조절로서 이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과정이며, 행동보다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은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탄력적인 사람은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상황 하에서도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정신적인 회복을 충분히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민동일, 2007 재인용).

Comner와 Davidson(2003)은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5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끈기를 보이는 강인성, 부정적 정서에 참을성을 보이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신중한 사고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신뢰, 변화와 타인과의 안정된 관계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관련된 낙관성,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을 통제하고 타인의 도움을 얻는 통제 및 사회적 지지, 신앙에 대한 평가와 관련있는 영성이었다.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Rochester 아동탄력성 연구과제에서는 낙천성과 공감의 아동기의 적용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적용을 가장 잘 예언하는 요인임을 주장했다(Wyman, Cohen, Work & Kerley, 1993). 반면,

Alessandrini와 Vecchioni와 Caprarola와 Letzring(2012)은 삶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최상의 조절력이야말로 자아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2요인이라고 역설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요소들을 유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능감이다. 여기에는 이상에서 말해진 친사회적 특성, 타인과의 유대관계, 사회적 지지, 타인에 대한 호감,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힘, 공감력, 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와 활동이다. 학자들이 말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활동성, 능동적 접근, 활력성, 창조성, 호기심, 새로운 경험 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이다. 여기에는 학자들이 제시한 낙관성, 자신감, 자기신뢰, 삶의 긍정적 신념 등의 용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정조절이다. 여기에는 조절력, 적절한 정서표현, 이성적 대처, 감정통제, 분노조절, 참을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요인 중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요인은 이 연구에서 별도의 종속변인으로 다루지고 있어, 종속변인과의 개념적 중첩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Atsushi 등(민동일, 2007 재인용)의 3요인 구성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이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첫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둘째, 감정조절 셋째,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의 3요인으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전술하였듯이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능력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친사회적이다(Murphy & Moriarty, 1976; 김지은, 2003 재인용). 그들은 타인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고, 가정 밖에서도 감정적 지지를 얻으며, 친구들의 인기를 얻고, 친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진다(Garmezy, 1983, 김지은, 2003 재인용).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Block & Block, 1980), 친구들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Block & Kreman, 1996), 대인관계의 통찰력과 따뜻함을 지니고, 가족 또는 타

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Klohn, 1996; Rutter, 1987).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유능감과 깊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Waaktaar와 Torgersen(2010)은 1,34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개의 자아탄력성척도를 사용하여 성격의 5대요인모형과의 상관연구를 실시했는데, 두 개의 자아탄력성척도 모두에서 성격의 5요인인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박애, 상상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여기서 외향성과 박애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사교성, 사회참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fitz와 Lumley와 Hennig와 Dozois(2013)는 17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긍정적 인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모든 긍정적 인지(자기효능감, 대인신뢰, 성공감, 낙관성, 자기가치)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여기서 자아탄력성과 대인신뢰와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대인적응성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연구에서도 한현아(2007)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했고, 정에리(2009)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지연(2004)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며,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공감적 이해와 자아개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위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언어통제 양식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형제라 할지라도 사회적 유능감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형제나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

족구조, 아동의 성격특성이나 기질, 학습능력 등 여러 요인들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하나로 간주되는 자아탄력성은 장차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삶 전반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감의 정도는 이후 성인기의 부적응을 예언한다(Dodge, Asher, & Parkhurst, 1989)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애착형성, 부모의 양육방식 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Ahmad, 2009; Ainsworth, 1979; Baumrind, 1991; Clark & Ladd, 2000; Miller, 1999; Montes, 2002; Pezzella, 2010). 특히 부모의 언어는 양육의 핵심적 요소로서, 아동은 언어적 환경 속에서 자신이 사회구조에 동화되고 사회화된다(Bernstein, 1971)고 볼 때,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부모의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도혜숙, 1997; 이종현, 2000; 채지현, 2010; 한윤희, 2012). 이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이현주, 1990),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포괄적 상황이해를 가능하게 하기(도혜숙, 1997)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으로서(Werner & Smith, 1982, 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재인용), 자아탄력성이 강한 아동은 자기의지가 강하고(Murphy & Moriarty, 1976, 김지은, 2003 재인용), 충격에서 빨리 평정을 찾는 특징(Block & Kerman, 1996)을 가진다. 그렇다면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에 대하여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기통제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연구결과를 볼 때, 백민정(2011)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며,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유사 연구로서, 조계연과 이은희(2007) 및 최미숙(2014)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가족긴장성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매개역할을 하여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허미정(2012)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가정의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한현아(2007)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기대된다. 즉,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연구 절차, 그리고 자료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38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척도를 빠뜨리거나 무성의 응답을 한 50부를 제외한 32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	169	52.3
	여	154	47.7
학년	5학년	192	59.4
	6학년	131	40.6
전 체		323	100.0

연구대상자는 전체 323명으로, 남학생 169명(52.3%), 여학생 154명(47.7%)으로

성별의 비율은 남학생이 좀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5학년 192명(59.4%), 6학년 131명(40.6%)으로 5학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식으로, 언어통제 양식 척도, 사회적 유능감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통제 양식 척도

언어전달 과정에서 화자의 어법이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청자에게 지각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부모자신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언어통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아니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느냐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동은 부모의 말의 내용 뿐 아니라 부모의 목소리, 억양, 표정 등을 종합하여 지각하기 때문이다(김여가, 1997). 실제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의도나 지각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이다(김민옥, 2012).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Bernstein (1971)의 이론에 근거한 이종헌(2000), 김민옥(2012)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수정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조언과 전문가 3명의 평정을 받았다. 크게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각 문항은 다시 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는데, 3개의 하위문항은 (1) 명령적 언어통제, (2)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3)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의 문항이다. 문항의 예로서, “길을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예시가 제시되고, 이에 3개의 하위문항이 제시된다. 명령적 언어통제인 “넌 인사도 할 줄 모르니?”,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인 “인사를 잘 해야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인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 아줌마가 서운하시겠다.”이다. 각 하위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문항별로 응답하게 하여,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일 것이다(2점)’, ‘그런 편일 것이다(3점)’, ‘매우 그럴 것이다(4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언어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하위요인이 피검자가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된다.

언어통제 양식척도의 문항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부모 언어통제 양식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명령적	22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22-(1)
지위지향적	22	1-(2), 2-(2), 3-(2), 4-(2), 5-(2), 6-(2), 7-(2), 8-(2), 9-(2), 10-(2), 11-(2), 12-(2), 13-(2), 14-(2), 15-(2), 16-(2), 17-(2), 18-(2), 19-(2), 20-(2), 21-(2), 22-(2)
인성지향적	22	1-(3), 2-(3), 3-(3), 4-(3), 5-(3), 6-(3), 7-(3), 8-(3), 9-(3), 10-(3), 11-(3), 12-(3), 13-(3), 14-(3), 15-(3), 16-(3), 17-(3), 18-(3), 19-(3), 20-(3), 21-(3), 22-(3)
언어통제 양식	66	

새로 수정한 척도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66개 문항에 대해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scree검사와 누적변량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 3개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으며, Kaiser의 직교회전(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분석결과 어느 요인에서도 .40이상 부하되지 않는 문항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최종분석에서 사용될 66문항에 대한 부와 모, 각각의 척도 요인행렬은 <부록 1>과 <부록 2>와 같다. 부모 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부모 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하위요인	문항수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요인타당도
부				
명령적	22	.941	.908	.691
지위지향적	22	.912	.885	.872
인성지향적	22	.927	.897	.831
모				
명령적	22	.943	.915	.686
지위지향적	22	.904	.871	.863
인성지향적	22	.916	.885	.852

2) 사회적 유능감 척도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왕정희(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검사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 10문항, 대인적응성 10문항, 사회참여도 10문항, 주도성 10문항, 그리고 인기도 10문항으로 총 50개 문항이다. ‘사교성’ 문항의 한 예는 “나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잘 사귀다”이며, ‘대인적응성’ 문항의 한 예는 “나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이다. ‘사회참여도’ 문항의 한 예는 “나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이며, ‘주도성’ 문항의 한 예는 “친구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른다”이다. ‘인기도’ 문항의 한 예는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친구들이 좋아한다”이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와 문항구성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사회적 유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사교성	10	1, 2, 3, 4, 5, 6, 7, 8, 9, 10	.871
대인적응성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48
사회참여도	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24
주도성	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899
인기도	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921
사회적 유능감	50	1-50	.957

3) 자아탄력성 척도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가 제작한 Resilience Scale을 민동일(2007)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검사로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7문항, 감정조절 7문항, 긍정적 미래지향성 6문항으로 전체 20문항이다.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문항의 한 예는 “새로운 것이나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이며, ‘감정조절’ 문항의 한 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이다. ‘긍정적 미래지향성’ 문항의 한 예는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3개 하위요인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7문항), 감정조절(7문항), 그리고 긍정적 미래지향성(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와 문항구성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7	1, 4, 8, 12, 16, 18, 20	.864
감정조절	7	2, 5, 7, 9, 11, 13, 19	.856
긍정적 미래지향성	6	3, 6, 10, 14, 15, 17	.896
자아탄력성	20	1-20	.940

3.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질문지를 통한 양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제주 시내 2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에게 실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420부를 배부하여 383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응답을 포함한 불성실한 설문지 50부를 제외한 323부를 이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각 검사의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후 통계적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장에서 연구자는 연구 방법에서 밝힌 연구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 결과, 상관관계,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순이다.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 기술통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남아(<i>n</i> =169)		여아(<i>n</i> =154)		전체(<i>n</i> =323)	
		M	SD	M	SD	M	SD
부- 통제	명령적	1.97	.72	1.70	.65	1.84	.70
	지위지향적	2.56	.65	2.63	.66	2.60	.65
	인성지향적	2.28	.69	2.35	.72	2.32	.71

모- 통제	명령적	2.11	.61	1.98	.77	2.05	.77
	지위지향적	2.70	.61	2.82	.60	2.75	.61
	인성지향적	2.42	.71	2.50	.66	2.45	.69
사 회 적 유 능 감	사교성	2.74	.55	2.79	.54	2.76	.55
	대인적응성	2.68	.49	2.90	.45	2.78	.48
	사회참여도	3.11	.62	3.33	.56	3.21	.60
	주도성	2.58	.61	2.70	.54	2.64	.58
	인기도	2.45	.62	2.59	.56	2.52	.60
	전체	2.71	.47	2.86	.40	2.78	.44
탄 력 성	흥미와 관심 의 다양성	3.05	.61	3.23	.53	3.14	.58
	감정조절	2.77	.61	2.90	.58	2.83	.59
	긍정적 미래지향성	3.07	.66	3.25	.59	3.16	.64
	전체	2.96	.57	3.12	.51	3.04	.55

2) 상관관계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과 같다.

부의 언어통제 양식 중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였고($r=.289$), 다음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였다($r=.254$).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257\sim.269$).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미래지향성($r=.269$)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감정조절($r=.257$)이었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211\sim.245$).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미래지향성($r=.245$)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감정조절($r=.211$)이었다.

<표 IV-2> 부모 언어통제 양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n = 3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부-명령	1															
2.부-지위	.250***	1														
3.부-인성	.009	.678***	1													
4.모-명령	.762***	.141*	-.038	1												
5.모-지위	.215***	.859***	.567***	.154**	1											
6.모-인성	.032	.605***	.884***	-.019	.669**	1										
7.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154**	.211***	.259***	-.178**	.222***	.314***	1									
8.감정조절	-.179**	.235***	.257***	-.254***	.247***	.292***	.707***	1								
9.긍정적 미래지향성	-.206***	.245***	.269***	-.243***	.256***	.320***	.782***	.702***	1							
10.자아탄력성(전체)	-.198***	.254***	.289***	-.249***	.267***	.340***	.916***	.891***	.910***	1						
11.사교성	-.035	.210***	.241***	-.086	.173**	.253***	.560***	.504***	.466***	.564***	1					
12.대인적응성	-.124*	.247***	.231***	-.140*	.237***	.236***	.471***	.612***	.470***	.574***	.447***	1				
13.사회참여도	-.034	.244***	.164**	-.032	.290***	.215***	.519***	.417***	.465***	.515***	.534***	.410***	1			
14.주도성	-.100	.158**	.196***	-.085	.136*	.203***	.518***	.535***	.414***	.542***	.625***	.505***	.485***	1		
15.인기도	-.089	.153**	.137*	-.087	.138*	.150**	.396***	.477***	.343**	.450***	.569***	.501***	.473***	.784***	1	
16.사회적 유능감(전체)	-.095	.253***	.241***	-.106	.245***	.264***	.620***	.636***	.541***	.663***	.801***	.703***	.742***	.863***	.847***	1

* $p < .05$, ** $p < .01$, *** $p < .001$

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긍정적 미래지향성($r=-.206$)이었고, 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가장 낮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r=-.154$)이었다. 즉, 부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의 언어통제 양식 중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였고($r=.340$), 다음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였다($r=.267$).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292\sim.320$).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미래지향성($r=.320$)이었고,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감정조절($r=.292$)이었다.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222\sim.256$).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미래지향성($r=.256$)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r=.222$)이었다.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r=-.178\sim-.206$).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감정조절($r=-.206$)이었고, 가장 낮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r=-.178$)이었다. 즉, 모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령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의 언어통제 양식 중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였고($r=.253$), 다음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였다($r=.241$).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153\sim.247$).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대인적응성($r=.247$)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

을 보이는 요인은 인기도($r=.153$)였다.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37\sim.241$).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사교성($r=.241$)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인기도($r=.137$)였다. 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는 아동의 대인적응성이 가장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는 아동의 사교성이 가장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의 언어통제 양식 중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였고($r=.264$), 다음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였다($r=.245$).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150\sim.253$).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사교성($r=.247$)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인기도($r=.150$)였다.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36\sim.290$).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사회참여도($r=.290$)였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주도성($r=.136$)이었다.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인적응성($r=-.140$)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모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는 아동의 사회참여도가 가장 많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는 아동의 사교성이 가장 많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모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대인적응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은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63$).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상호 유의한 상관을 나

타내었다($r=.343\sim.61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아탄력성 요인은 감정조절($r=.636$)이었다.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자아탄력성 요인은 미래지향성($r=.343$)이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대인적응성($r=.574$)이었다.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인기도($r=.450$)였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은 대인적응성과 감정조절($r=.612$)이었다.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은 인기도와 미래지향성($r=.347$)이었다. 즉,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1)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중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beta=.310, p<.05$)와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beta=.365, p<.05$)가 아동의 사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설명력은 8.4%였다($F=4.857, p<.001$). 따라서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공차한계값이 0.1 이상이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R ²	F	공선성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사회성	(상수)	2.386	.151		15.825				
	부-명령	-.008	.068	-.010	-.112			.375	2.668
	부-지위	.263	.130	.310*	2.027			.124	8.078
	부-인성	-.125	.126	-.161	-.988	.084	4.857***	.110	9.132
	모-명령	-.063	.061	-.089	-1.047			.403	2.481
	모-지위	-.212	.133	-.237	-1.599			.132	7.597
	모-인성	.289	.127	.365*	2.279			.113	8.866
대인 적응성	(상수)	2.428	.133		18.286				
	부-명령	-.097	.060	-.140	-1.614			.375	2.668
	부-지위	.173	.114	.229	1.515			.124	8.078
	부-인성	-.046	.111	-.066	-.413	.105	6.155***	.110	9.132
	모-명령	-.048	.053	-.075	-.893			.403	2.481
	모-지위	.011	.117	.014	.092			.132	7.597
	모-인성	.106	.112	.150	.948			.113	8.866
사회 참여도	(상수)	2.558	.165		15.489				
	부-명령	-.097	.074	-.113	-1.312			.375	2.668
	부-지위	.117	.137	.127	.853			.124	8.078
	부-인성	-.158	.134	-.189	-1.181	.098	5.721***	.110	9.132
	모-명령	.002	.066	.003	.035			.403	2.481
	모-지위	.185	.140	.191	1.324			.132	7.597
	모-인성	.155	.134	.181	1.151			.113	8.866
주도성	(상수)	2.348	.162		14.520				
	부-명령	-.123	.072	-.150	-1.697			.375	2.668
	부-지위	.212	.134	.240	1.578			.124	8.078
	부-인성	-.087	.131	-.108	-.663	.062	3.492**	.110	9.132
	모-명령	.015	.064	.020	.230			.403	2.481
	모-지위	-.144	.137	-.155	-1.051			.132	7.597
	모-인성	.216	.132	.262	1.640			.113	8.866

	(상수)	2.269	.169		13.440				
	부-명령	-.109	.075	-.128	-1.438		.375	2.668	
	부-지위	.240	.140	.262	1.714		.124	8.078	
인기도	부-인성	-.144	.137	-.173	-1.055	.047	2.592*	.110	9.132
	모-명령	-.010	.067	-.012	-.144		.403	2.481	
	모-지위	-.102	.143	-.106	-.715		.132	7.597	
	모-인성	.187	.137	.219	1.359		.113	8.866	
	(상수)	2.393	.122		19.625				
	부-명령	-.085	.055	-.135	-1.566		.375	2.668	
사회적	부-지위	.202	.101	.295	1.993		.124	8.078	
유능감	부-인성	-.112	.099	-.180	-1.131	.109	6.413***	.110	9.132
(전체)	모-명령	-.020	.048	-.035	-.420		.403	2.481	
	모-지위	-.050	.103	-.070	-.488		.132	7.597	
	모-인성	.188	.099	.295	1.891		.113	8.866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다양성, 감정조절, 미래지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한계	VIF
	(상수)	1.012	.141		7.164				
사회성	다양성	.388	.073	.415***	5.305	.337	54.134***	.339	2.946
	감정조절	.202	.062	.221***	3.233			.443	2.257
	미래지향성	-.012	.066	-.015	-.187			.343	2.912

	(상수)	1.287	.122		10.560				
대인 적응성	다양성	.040	.063	.048	.637	.378	64.724***	.339	2.946
	감정조절	.440	.054	.542***	8.169			.443	2.257
	미래지향성	.039	.057	.051	.681			.343	2.912
	(상수)	1.451	.162		8.981				
사회 참여도	다양성	.384	.084	.374***	4.584	.280	41.276***	.339	2.946
	감정조절	.062	.071	.062	.871			.443	2.257
	미래지향성	.121	.076	.129	1.587			.343	2.912
	(상수)	.885	.150		5.914				
주도성	다양성	.343	.078	.348***	4.422	.330	52.432***	.339	2.946
	감정조절	.359	.066	.374***	5.426			.443	2.257
	미래지향성	-.108	.070	-.120	-1.535			.343	2.912
	(상수)	1.051	.165		6.350				
인기도	다양성	.164	.086	.160	1.908	.236	32.906***	.339	2.946
	감정조절	.414	.073	.416***	5.662			.443	2.257
	미래지향성	-.070	.078	-.075	-.894			.343	2.912
	(상수)	1.137	.104		10.969				
사회적 유능감 (전체)	다양성	.264	.054	.346***	4.910	.463	91.510***	.339	2.946
	감정조절	.295	.046	.398***	6.447			.443	2.257
	미래지향성	-.006	.049	-.009	-.124			.343	2.912

*** $p < .001$

<표 IV-4>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beta = .415, p < .001$)과 감정조절($\beta = .221, p < .001$)이 아동의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전체 설명력은 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4.134, p < .001$). 따라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는 공차한계값이 0.1 이상이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고,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앞의 <표 IV-2>에 의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가 있는 부와 모 각각의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1) 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254$, $p<.001$).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6.5%이다($F=22.179$, $p<.001$). 또한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253$, $p<.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6.4%이다($F=21.949$, $p<.001$). 마지막으로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체 설명력은 44.8%이다($F=129.603$, $p<.001$).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여($\beta=.090$, $p<.05$), 자아탄력성이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4.470$, $p<.001$). 즉,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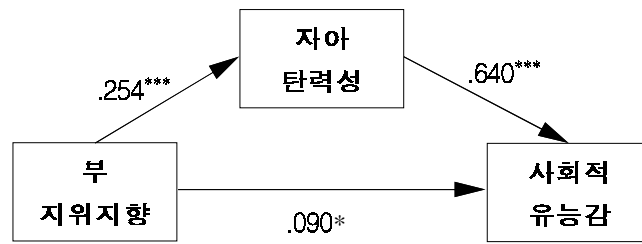
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는 .090(35.6%), 간접효과는 .163(64.4%)이다. 따라서 부의 지위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부-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Sobel test(z)
		B	SE	β				
독립 → 매개	(상수)	49.607	2.435		20.370	.065	22.179***	
	부-지위 →자아탄력성	4.283	.910	.254***	4.709			
독립 → 중속	(상수)	116.622	4.943		23.595	.064	21.949***	4.470***
	부-지위 →사회적유능감	8.649	1.846	.253***	4.685			
독립, 매개 → 중속	(상수)	52.176	5.759		9.060	.448	129.603***	
	부-지위 →사회적유능감	3.084	1.469	.090*	2.100			
	자아탄력성 →사회적유능감	25.983	1.743	.640***	14.904			
		총효과: .253	직접효과: .090	간접효과: .163				

* $p < .05$, *** $p < .0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2) 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IV-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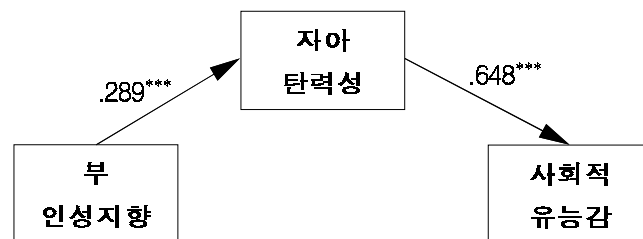
<표 IV-6> 부-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Sobel test(z)
		B	SE	β				
독립	(상수)	2.524	.099		25.050			
→	부-인성					.084	29.281***	
매개	→자아탄력성	.222	.041	.289***	5.427			
독립	(상수)	2.434	.082		29.823			
→	부-인성					.055	19.854***	
중속	→사회적유능감	.150	.034	.241***	4.456			4.233***
독립,	(상수)	1.108	.109		10.144			
매개	부-인성							
→	→사회적유능감	.034	.027	.054	1.241	.443	127.041***	
중속	자아탄력성							
	→사회적유능감	.526	.035	.648***	14.854			
완전매개효과								

***p<.001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289$, $p<.001$).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8.4%이다($F=29.281$, $p<.001$). 또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241$, $p<.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5.5%이다($F=19.854$, $p<.001$). 마지막으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체 설명력은 44.3%이다($F=127.041$, $p<.001$).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beta=.054$, $p>.05$), 자아탄력성이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4.233$, $p<.001$).

따라서 부의 인성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인성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 2]와 같다.



[그림 IV-2]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3) 또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모-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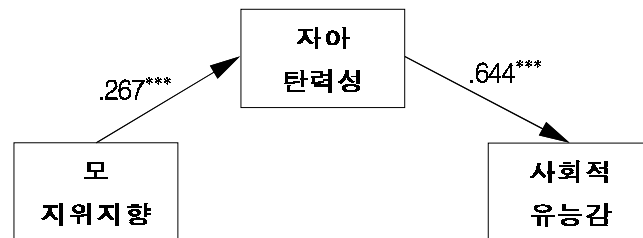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Sobel test(z)
		B	SE	β				
독립	(상수)	2.384	.135		17.678			
→	모-지위					.071	24.600***	
매개	→자아탄력성	.237	.048	.267***	4.960			
독립	(상수)	2.296	.110		20.854			
→	모-지위					.057	21.430***	
중속	→사회적유능감	.176	.039	.245***	4.520			4.319***
독립,	(상수)	1.051	.119		8.824			
매개	모-지위							
→	→사회적유능감	.053	.031	.073	1.686	.445	128.202***	
중속	자아탄력성							
	→사회적유능감	.522	.035	.644***	14.897			
완전매개효과								

*** $p < .001$

<표 IV-7>에서와 같이,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 = .267, p < .001$). 자아탄력성에 대한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7.1%이다($F = 24.600, p < .001$). 또한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 = .245, p < .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5.7%이다($F = 21.430, p < .001$). 마지막으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체 설명력은 44.5%이다($F = 128.202, p < .001$).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beta = .073, p > .05$). 자아

탄력성이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4.319$, $p<.001$).

따라서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지위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4) 모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340$, $p<.001$). 자아탄력성에 대한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11.5%이다($F=41.903$, $p<.001$). 또한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263$, $p<.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11.5%이다($F=69.485$, $p<.001$). 마지막으로 모의 인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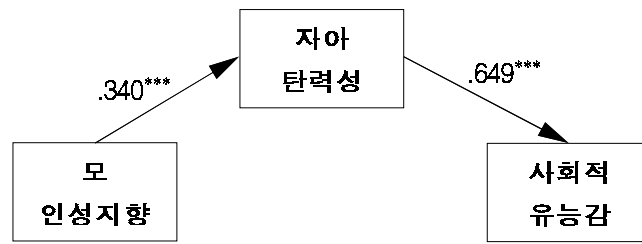
향적 언어통제와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체 설명력은 37.0%이다 ($F=109.303, p<.001$).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beta=.043, p>.05$). 자아탄력성이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4.609, p<.001$).

<표 IV-8> 모-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Sobel test(z)
		B	SE	β				
독립	(상수)	2.373	.106		22.288			
→ 매개	모-인성 →자아탄력성	.270	.042	.340***	6.473	.115	41.903***	
독립	(상수)	2.364	.089		26.678			
→ 종속	모-인성 →사회적유능감	.170	.035	.263***	4.889	.115	69.485***	4.609***
독립, 매개	(상수)	1.115	.110		10.161			
→	모-인성 →사회적유능감	.028	.028	.043	.964	.370	109.303***	
종속	자아탄력성 →사회적유능감	.526	.036	.649***	14.604			
완전매개효과								

*** $p<.001$

따라서 모의 인성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인성지향적 통제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IV-4]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여부를 알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하고,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논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그리고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 순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와 모 동일하게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

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하위변인 중 대인적응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채지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가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상관이, 불안정성과는 정적상관이 있다는 정현희와 최경순(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여아의 유능성 및 지도력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정현희와 최경순(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동의 사교성과 정적상관을 가진다는 이경희(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부적상관이 있다는 임정숙(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버지가 명령적 언어통제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낮다는 도혜숙(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자율지향적 양육은 아동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동의 유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최경순, 1992),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자율성을 억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와 모 동일하게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모의 언어통제 양식을 인성지향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김지은(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혜민(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와 모의 명령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김민옥(2012), 백민정(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민옥(2012), 백민정(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와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낙관성(긍정적 미래지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김민옥(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호기심(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및 낙관성(긍정적 미래지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김민옥(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상으로 보아, 부와 모의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외적요인 중에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기 때문(Goldstein & Brooks, 2005)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대인신뢰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이 있다는 Keyfitz와 Lumley와 Hennig와 Dozois(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는 한현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낮아진다는 정애리(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래관계에 잘 적응한다는 허지연(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이 또래지지와는 정적상관을, 사회적 위축과는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최미숙(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강건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적응능력으로서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자기확신과 자기수용의 정도가 높아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Block & Block, 1980)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친사회적이고(Murphy & Moriarty, 1976, 김지은, 2003 재인용), 타인에 대해 애정을 가지며(Garmezy, 1983, 김지은, 2003 재인용), 변화와 타인과의 안정된 관계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관련된 낙관성을 가지기(Conner & Davidson, 2003)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및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교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인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경희(1993)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또래관계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백민정(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통제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도혜숙(1997), 김지은(2003), 김정선(2003), 장재호(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교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주목할 것은 아동의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각각 달리 나왔다는 점이다. 즉, 부에 있어서는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모에 있어서는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교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다른 독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McDonald & Parke, 1984)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대인신뢰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Keyfitz와 Lumley와 Hennig와 Dozois(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는 한현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낮아진다는 정애리(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래관계에 잘 적응한다는 허지연(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이 또래지지와는 정적상관을, 사회적 위축과는 부적상관을 가지는 최미숙(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변인과 감정조절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흥미와 관심이 다양할수록, 감정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는 한현아(2007)와 최미숙(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낮아지며(정애리, 2009; 허지연, 2004), 또래관계에 잘 적응한다(허지연, 2004)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흥미와 관심이 다양할수록 새로운 관계에도 불안이나 위협을 무릅쓰고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며(Atsushi, et al., 2002, 민동일, 2007 재인용), 감정조절능력이 뛰어나갈수록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정서에 참을성을 보이며(Conner & Davidson, 2003) 대처해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민정(2011)은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결과에서는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특이한 점으로서,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영향이 있으나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직접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와 모가 각각의 고유한 역할 속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arsons와 Bales(1955)에 의하면, 부와 모는 각각의 성역할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이 때 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반면, 부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 개념을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차

적인 존재로서, 남아와 여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시킨다. 따라서 또래 친구나 모보다 부가 더욱 중요한 사회화의 매개자일 수 있다(Langlois & Downs, 1980). 특히 점점 친구 중심으로 되어가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주위의 다른 성인들로부터 세상을 배워가게 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부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의 역할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Canfield, 1995).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모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의 직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는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결론으로 이끄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부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를 할 때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거니와,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강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더욱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이다. 또한 부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하거나 모가 지위지향적 및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할 때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여 그 간접효과로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야 하고,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언어통제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언어통제가 명령적일 때 보다 지위지향적이거나 인성지향적일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초등학교 5·6학년 일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의 학생에게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령별 차이를 통한 보다 포괄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 대상이 제주도 소재 2개 초등학교이므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지역의 학생에게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는 각 요인들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모든 연구자료가 자기보고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이 문항 등을 상세히 읽지 않고 불성실하게 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 친구, 부모 등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외에 다양한 예언변인들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아동의 성격적 특성, 성격유형, 형제순위 등 아동의 다양한 내적 외적 변인들이 함께 고려된다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섯째, 부모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 속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모의 언어통제 양식이 인성지향적 양식이라 하더라도 부의 언어통제 양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와 모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부-모 언어통제 양식 조합별 표본 수가 고르지 않고, 일부 조합별 표본수가 조합을 대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부-모 언어통제 양식 조합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와 모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언어통제 양식 조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사회적 유능감은 삶 전반의 적응감과 깊은 관련이 있고 특히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는 그 이후 성인기의 부적응을 예언한다. 따라서 성인기의 적응 및 정신건강을 위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리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것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 국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치료적 접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향후 부모의 언어통제 방식,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정희 (1981). 어머니의 대화형태와 아동의 성적 및 사회적 인지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대하 (2006). 가족의사소통유형이 고등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여수대학교.
- 김민옥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소영 (1999). 미술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김여가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인자 역 (1989). P.E.T. 강사지침서.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인자 역 (1998). P.E.T.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정선 (200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선대학교.
- 김지은 (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유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혜민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언어통제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나현미 (2010). 어머니의 언어통제 양식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도혜숙 (199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성희 (1982). 어머니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개념화 유형과의 관계 : 5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

- 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박금옥 (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 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박은희 (1997).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백민정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우수경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윤기욱 (1973). 가정의 언어적 환경과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미경 (1984).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인지양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미경 (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이순미 (2007).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애리나 (1990).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전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은영 (2008).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종현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에 따른 아동의 감성지능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현주 (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정숙 (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장재호 (2009).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장준희 (2006).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정애리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정현희, 최경순 (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35), 163-175.
- 조계현, 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채지현 (2010).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미숙 (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한민경 (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윤희 (2012).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한현아 (2007).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허미정 (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허지연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축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Ahmad, I (2009). *Mother's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Palestinia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Ainsworth, M.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9.
- Alessandrini, G., Vecchionel, M., Caprara, G., & Letzring, T. D. (2012). The ego resiliency scale revised.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8(2), 139-146.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 - 95.
- Bernstein, B.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ernstein, B. (1972). A Sociolinguistic approach to socialization; with some reference to educability. In J. J. Gumperz &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pp. 465-497).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yant, B. K., & Crockenberg, S. B.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Cassidy, J., & Asher, S. (1992). Loneliness &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85 - 98.
- Cook-Gumperz, J. (1973). *Social control and socialization: A study of class difference in the language of maternal contro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onner, K. M., & Davidson, R. T.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Davydov, D. M., Stewart, B., Ritchie, K., & Chaudieu, I. (2010).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479-495.
- Dodge, K. A., Asher, S. R., & Parkhurst, J. T. (1989). Social life as a goal-coordination task. In C. Ames and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nc.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of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 213).
- Doh, H. (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rs :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17-528.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1), 136-157.
- Eisenberg, N., Spinrad, T. L., Fabes, R. A., Reiser, M., Cumberland, A., & Shepard, S. A. (2004).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to children's resiliency an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5*, 25-46.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Gresham, F. M., & Elliott, S. N. (1984).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social skills: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School Psychology Review, 13*, 292-301.
- Gresham, F. M., & Reschly, D. J. (1987). Dimensions of social competence: Method factors in the assessment of adaptive behavior, social skills, and peer accepta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 367-381.
- Hasan, R. (2001). Understanding talk: directions from Bernstein's sociology. *Int. J. Social Research Methodology, 4*(1), 5-9.
- Hofer, C., Eisenberg, N., & Reiser, M. (2010). The role of socialization, Effortful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French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3), 555-582.
- Hsieh, Y. P. (2009). *Parenting styles and peer relations across early childhood through early adolescence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Keyfitz, L., Lumley, M. N., Hennig, K. H., & Dozois, D. J. A. (2013). The role of positive schemas in child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Cognitive*

- Therapy and Research*, 37, 97-108.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ohn, M., & Rose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preschool child: factor dimension,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30-444.
- Lazarus, L.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add, G. W. (1999).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333-359.
- Langlois, J. H. & Downs, A. C. (1980). Mothers, fathers, and peers as socialization agents of sex-stereotyped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1217-1247.
- Martel, M. M., Nigg, J. T., Wong, M. M., Fitzgerald, H. E., Jester, J. M., & Puttler, L.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resiliency, regulation,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relation to adolescent problems and competence in a high-risk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541-563.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cDonald, K., & Parker, R. C.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iller, S. B. (1999). *Facilitation of peer relations: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ctivities and its relation to their peer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Miller, N. B. Cowan, P. A, Cowan, C. P., & Hetherington, E. M. (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18.
- Montes, N. G. (2002). *The link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social competence in at-risk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Moor, R. (2001). Obituary, Basil Bernstein 1924-2000.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7(3), 367-370.
- Panter-Brick. C., & Leckman. J. F. (2013). Editorial commentary: Resilience in child development - interconnected pathways to wellbe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4), 333-336.
- Pezzella, F. S. (2010). *Authoritarian parenting: A race socializing protective factor that deter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rom delinquency and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Riske-Morris, M (2005). *Parenting styles and school social competence: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and persistent absentee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Rubin, K. H. & Krasnor, L. R. (198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a representative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 463-475.
- Rubin, K. H. & Rose-Krasnor, L. (1992).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In V.B. Van Hasselt & M. Herse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pp. 283-323). New York: Plenum.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Rydell, A. M., Hagekull, B., & Bohlin, G. (1997). Measurement of two social competence aspect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24-833.

- Sheridan, S. M., Hungelmann, A., & Maughan, D. P. (1999). A contextualized framework for social skills assessment, intervention, and generalization. *The School Psychology Review, 28*(1), 84-103.
- Spinrad, T., Eisenberg, N., Cumberland, A., Fabes, R. A., Valiente, C., & Shepard, S. A., (2006). Relation of emotion-related regu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Emotion, 6*(3), 498-510.
- Waaktaar, T. & Torgersen, S. (2010). How resilient are resilience scales? The Big Five scales outperform resilience scales in predicting adjustment in adolesc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1*, 157 - 163.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eiss, L. H., & Schwarz, J. C.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5), 2,101 - 2,114.
- Williams, E. C. (2010). Maternal control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effects on children's social dominance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Wolfradt, U., Hempel, S., & Miles, J. N. V. (2003). Perceived parenting styles, depersonalisation, anxiety and coping behaviour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3), 521 - 532.
- Wyman, P. A., Cohen, E. L., Work, W. C., & Kerley, J. H. (1993). The role of children's future expectations in self-system functioning and adjustment to life stress: A prospective study of urban at-risk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649-661.

Abstract

Relations among Perceived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Ego-resiliency and Social Competency

Kang, Su Se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ego-resilien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CSC), as well as mediating rel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323 students(5-6 grade) were selected from 2 elementary schools in Jeju.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Scale, Ego-resiliency Scale, and Social Competency Scale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18.

The summary of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ego-resiliency, and CSC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Second,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ther's position-oriented control and mother's

person-oriented control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CSC, especially on children's sociability. Children's ego-resiliency had significant effect on every sub-factors of CSC. Third, children's ego-resilienc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SCS. Especially, it had a partial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 with father's position-oriented control, and full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 with father's person-oriented control, mother's position-oriented control, and mother's person-oriented control.

Key words: ego-resiliency,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social competency

부 록

<부록 1>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과 여러분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서 ○표 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공개되지 않고 단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빠진 응답이 있는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강수선 드림

(kwang003@naver.com)

지도교수: 김민호

()초등학교 ()학년 ()반 성별(남 · 여)

※성별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다음 질문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어진 문항을 잘 읽고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각각 ○표 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편일 것이다	그런 편일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1	2	3	4

<예시>

1	시험 점수가 낮아 속이 상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1) 뭘 잘했다고 그래! 빨리 와서 먹어.	1	2	3	④	①	2	3	4
(2) 그래도 다 같이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지.	1	②	3	4	1	2	③	4
(3) 많이 속상했구나.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니?	①	2	3	4	1	2	3	④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예: 핸드폰, 닌텐도, 자전거 등)을 사달라고 하였더니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른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버릇없이 자꾸 그럴래? 혼나고 싶어?	1	2	3	4	1	2	3	4
(2)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면 안 되는 거야.	1	2	3	4	1	2	3	4
(3) 사줄 수가 없는데 네가 떼를 쓰니 정말 속상하다.	1	2	3	4	1	2	3	4

2	부모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 (예: 만화방, PC방, 오락실 등)에 내가 몰래 갔다 온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1) 앞으로 용돈은 없어. 알았니?	1	2	3	4	1	2	3	4
(2) 학생은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야.	1	2	3	4	1	2	3	4
(3) 그런 곳에 안 가겠다고 나하고 전에 약속했었잖니.	1	2	3	4	1	2	3	4

3	집에 오신 손님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너 이따가 혼날 줄 알아.	1	2	3	4	1	2	3	4
		(2) 너 왜 손님 앞에서 칠 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1	2	3	4	1	2	3	4
		(3) 너 버릇없이 굴면 손님들이 흥보겠다.	1	2	3	4	1	2	3	4

4	준비물을 안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빌려주지 않아서 나도 절대로 그 애에게는 아무것도 안 빌려 주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넌 왜 제때 준비물 하나 못 챙겨가니?	1	2	3	4	1	2	3	4
		(2) 그래도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1	2	3	4	1	2	3	4
		(3) 친구한테 많이 섭섭했구나. 혹시 그 친구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1	2	3	4	1	2	3	4

5	낮에 실컷 놀다가 밤 늦게 숙제하느라 잠 잘 시간이 지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				
		(1) 밤에 이 난리 피울래,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1	2	3	4	1	2	3	4
		(2) 학교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해야지.	1	2	3	4	1	2	3	4
		(3) 이제 숙제하려니 졸립지? 내일 아침에 피곤하겠다.	1	2	3	4	1	2	3	4

6	어머니께서 나에게 선물을 사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내가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1)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을 배웠어. 인사 똑바로 못해?	1	2	3	4	1	2	3	4
		(2)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러면 안돼.	1	2	3	4	1	2	3	4
		(3) 많이 서운했구나. 엄마도 잊어버릴 때가 있단다. 네가 인사를 안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1	2	3	4	1	2	3	4

7	책상 앞에서 몸을 바로 하지 않고 숙제하고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1)	1	2	3	4	1	2	3	4
(2)	1	2	3	4	1	2	3	4
(3)	1	2	3	4	1	2	3	4

8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손 씻기를 잊어버리고 밥상에 앉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1)	1	2	3	4	1	2	3	4
(2)	1	2	3	4	1	2	3	4
(3)	1	2	3	4	1	2	3	4

9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책을 꺼내다가 옆에 있던 전기스탠드를 떨어 뜨려 깨어버린다면							
	아버지				어머니			
(1)	1	2	3	4	1	2	3	4
(2)	1	2	3	4	1	2	3	4
(3)	1	2	3	4	1	2	3	4

10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식구들에게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먹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이 국그릇을 옆질러 버렸다면							
	아버지				어머니			
(1)	1	2	3	4	1	2	3	4
(2)	1	2	3	4	1	2	3	4
(3)	1	2	3	4	1	2	3	4

11	길을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넌 인사도 할 줄 모르니?	1	2	3	4	1	2	3	4
(2)	인사를 잘 해야 착한 사람이지.	1	2	3	4	1	2	3	4
(3)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 아줌마가 서운하시겠다.	1	2	3	4	1	2	3	4

12	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오래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1)	이제 그만 끊어! 붙들었다 하면 놓을 줄을 몰라.	1	2	3	4	1	2	3	4
(2)	전화는 서로 필요한 말만 하는 거야.	1	2	3	4	1	2	3	4
(3)	혼자서 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집에 급한 일이 있어도 못 받잖아.	1	2	3	4	1	2	3	4

13	아침에 옷을 찾으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1)	그 옷들이 어때서 그래. 싫으면 입지 마.	1	2	3	4	1	2	3	4
(2)	옷이 아직 멀쩡한데 자꾸 사면 어떡해? 물건은 아껴 써야지.	1	2	3	4	1	2	3	4
(3)	마음에 드는 옷이 없구나. 오늘은 우선 입고 가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 해보자.	1	2	3	4	1	2	3	4

14	여러분이 옷이나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둔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넌 손이 없니? 빨리 치워.	1	2	3	4	1	2	3	4
(2)	옷을 입고 나서는 제대로 걸어 놓아야지.	1	2	3	4	1	2	3	4
(3)	이렇게 두면 아침에 옷을 제대로 찾아 입기가 어렵잖니.	1	2	3	4	1	2	3	4

15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방이나 마루에서 시끄럽게 장난을 친다면								
	아버지				어머니				
	(1) 조용히 못해!	1	2	3	4	1	2	3	4
	(2) 어른이 아프실 때는 조용해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 장난이니?	1	2	3	4	1	2	3	4
(3)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네가 떠들면 못 쉬실 거야.	1	2	3	4	1	2	3	4	

16	여러분이 친구와 싸워서 상처가 나 울상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바보같이 맞고만 다니니? 다시 맞고 왔단 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	1	2	3	4	1	2	3	4
	(2) 그러니까 사이 좋게 지내야지. 싸우는 건 나빠.	1	2	3	4	1	2	3	4
(3) 많이 아프겠구나. 어서 씻고 약 바르자.	1	2	3	4	1	2	3	4	

17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보니 책 한권이 없어졌다면								
	아버지				어머니				
	(1) 책 하나 간수 못해서 아침부터 이 난리니?	1	2	3	4	1	2	3	4
	(2) 책가방은 저녁에 싸 두었어야지.	1	2	3	4	1	2	3	4
(3) 책을 아무 곳이나 두니까 찾기 힘들지?	1	2	3	4	1	2	3	4	

18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집이 너무 어지러우니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집에서 계속 논다면								
	아버지				어머니				
	(1) 계속 그러면 친구들을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야.	1	2	3	4	1	2	3	4
	(2)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어린애도 아니잖니.	1	2	3	4	1	2	3	4
(3) 집안 청소를 해야했는데 너희 때문에 할 수가 없구나. 나가서 놀면 안되겠니?	1	2	3	4	1	2	3	4	

19	여러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방안을 어질러 놓은 채 그냥 둔다면								
	아버지				어머니				
(1)	이게 무슨 난리니. 빨리 치워.	1	2	3	4	1	2	3	4
(2)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잘 치워야지.	1	2	3	4	1	2	3	4
(3)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구나.	1	2	3	4	1	2	3	4

20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학원을 못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1)	너 혼 좀 나아겠다.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니?	1	2	3	4	1	2	3	4
(2)	학원에는 제 시간에 가야지. 학원을 빼먹으면 어떡해.	1	2	3	4	1	2	3	4
(3)	무슨 일 때문에 학원을 못 가게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1	2	3	4	1	2	3	4

21	친구 집에 다녀와서는 친구 집의 물건(책상, 컴퓨터, TV 등)을 부러워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1)	개네 집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	1	2	3	4	1	2	3	4
(2)	모든 물건을 다 가질 수는 없잖나.	1	2	3	4	1	2	3	4
(3)	너가 자꾸 그러면 부모 마음도 섭섭하게 되지 않겠니.	1	2	3	4	1	2	3	4

22	자야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1)	어서 가서 자!	1	2	3	4	1	2	3	4
(2)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1	2	3	4	1	2	3	4
(3)	늦게 자고 내일 수업시간에 졸면 어찌니?	1	2	3	4	1	2	3	4

-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태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잘 사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이웃 사람들과도 잘 사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건넨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다투지 않고 잘 논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기분이 나빠도 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나의 입장보다는 친구의 입장을 더 생각해준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주위 사람들이 충고해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친구들과 심한 말다툼은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활동해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친구들과의 게임에 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나 놀이에 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친구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준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놀이를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34	친구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35	친구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잘 설득시킨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자신 있게 새로운 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게임을 할 때 놀이를 잘 진행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어려운 일도 내 나름대로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39	나는 새로운 일을 자신 있게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40	나는 모임에서 진행을 자주 맡는다.	①	②	③	④
41	나는 친구들 모임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2	나는 소풍가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43	나는 학급에서 친구들을 곧잘 웃긴다.	①	②	③	④
44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45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친구들이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7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48	나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49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인기가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0	친구들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나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부록 2>

부-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요인1	요인2	요인3
a17-(1)	.810	-.013	.068
a19-(1)	.773	.016	.125
a15-(1)	.750	-.023	.045
a14-(1)	.739	-.107	.070
a20-(1)	.731	-.110	-.015
a11-(1)	.708	.043	.061
a10-(1)	.705	.057	-.087
a6-(1)	.696	.067	.124
a9-(1)	.696	.045	.078
a13-(1)	.688	.054	.068
a21-(1)	.671	-.012	-.002
a1-(1)	.646	-.025	.063
a22-(1)	.638	-.150	.099
a4-(1)	.637	-.031	.096
a12-(1)	.631	.088	.062
a3-(1)	.622	.022	.000
a5-(1)	.607	.000	.104
a18-(1)	.598	-.049	.102
a8-(1)	.588	.041	.171
a16-(1)	.584	.033	-.054
a7-(1)	.531	.076	.286
a2-(1)	.494	.005	.109
a3-(3)	-.039	.872	.341
a10-(3)	.128	.701	.121
a7-(3)	-.158	.671	.243
a21-(3)	.087	.668	.212
a19-(3)	.140	.647	.147
a14-(3)	.075	.646	.230
a13-(3)	-.114	.646	.272
a22-(3)	.133	.637	.131
a12-(3)	.071	.631	.137
a17-(3)	.136	.623	.285
a18-(3)	.155	.614	.155
a11-(3)	.066	.595	.177
a8-(3)	-.005	.579	.195
a9-(3)	-.193	.579	.229

a5-(3)	-180	.578	.235
a6-(3)	-.264	.560	.233
a16-(3)	-.214	.551	.291
a4-(3)	-.105	.543	.273
a20-(3)	-.153	.526	.314
a15-(3)	.037	.511	.243
a2-(3)	.014	.479	.255
a1-(3)	-.049	.407	.235
a15-(2)	.182	.387	.825
a19-(2)	.077	.167	.694
a14-(2)	.031	.218	.633
a17-(2)	.185	.190	.624
a20-(2)	.108	.082	.619
a10-(2)	-.035	.272	.608
a8-(2)	.056	.191	.608
a7-(2)	.112	.200	.597
a16-(2)	.008	.361	.563
a21-(2)	.030	.280	.549
a5-(2)	.176	.237	.546
a9-(2)	.076	.343	.546
a11-(2)	.009	.316	.541
a18-(2)	.294	.132	.513
a12-(2)	.138	.309	.506
a4-(2)	-.168	.273	.503
a2-(2)	.015	.183	.502
a22-(2)	.144	.195	.479
a6-(2)	.144	.344	.450
a13-(2)	.166	.381	.448
a3-(2)	.344	.235	.410
a1-(2)	.123	.223	.409
고유값	10.601	9.762	8.325
설명변량	16.063	14.79	12.613
누적변량	16.063	30.853	43.466
요인명	부-명령적	부-지위지향적	부-인성지향적

<부록 3>

모-언어통제 양식 척도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요인1	요인2	요인3
a14-(1)	.796	-.070	.059
a17-(1)	.775	-.005	.089
a19-(1)	.750	.021	.054
a6-(1)	.744	.084	.085
a11-(1)	.741	.009	.025
a10-(1)	.733	-.025	-.103
a15-(1)	.732	.002	.089
a20-(1)	.723	-.031	-.052
a13-(1)	.711	-.024	.024
a22-(1)	.698	-.084	.095
a9-(1)	.690	-.056	.109
a5-(1)	.673	.046	.036
a21-(1)	.663	.018	-.065
a18-(1)	.661	.097	-.009
a12-(1)	.653	.012	.007
a4-(1)	.623	-.059	.089
a16-(1)	.608	.099	-.034
a3-(1)	.595	.019	-.014
a8-(1)	.577	-.042	.093
a1-(1)	.558	-.058	.003
a7-(1)	.543	.102	.206
a2-(1)	.401	-.093	.098
a3-(3)	-.043	.729	.356
a19-(3)	.107	.662	.155
a10-(3)	.116	.658	.096
a14-(3)	.038	.656	.226
a21-(3)	.067	.640	.155
a18-(3)	.095	.631	.175
a22-(3)	.181	.617	.080
a7-(3)	-.053	.617	.290
a13-(3)	-.147	.613	.205
a15-(3)	.035	.610	.227
a12-(3)	.058	.599	.183
a8-(3)	-.084	.576	.199
a17-(3)	.155	.563	.198
a9-(3)	-.170	.560	.262

a11-(3)	.089	.557	.199
a6-(3)	-.251	.553	.330
a16-(3)	-.190	.548	.325
a5-(3)	-.244	.546	.210
a20-(3)	-.106	.493	.213
a4-(3)	-.150	.469	.277
a2-(3)	-.098	.453	.309
a1-(3)	-.008	.412	.236
a15-(2)	.106	.384	.712
a14-(2)	.003	.218	.667
a19-(2)	.084	.169	.627
a17-(2)	.171	.100	.593
a8-(2)	-.085	.128	.592
a7-(2)	.078	.276	.575
a16-(2)	.019	.325	.569
a20-(2)	.112	.090	.566
a22-(2)	.024	.170	.554
a10-(2)	-.118	.234	.548
a18-(2)	.241	.214	.541
a11-(2)	-.015	.320	.532
a2-(2)	-.051	.071	.527
a21-(2)	.012	.318	.524
a4-(2)	-.015	.235	.511
a5-(2)	.177	.127	.508
a6-(2)	.147	.335	.502
a13-(2)	.157	.366	.469
a12-(2)	.039	.299	.465
a9-(2)	.028	.334	.455
a1-(2)	.021	.213	.433
a3-(2)	.259	.144	.421
고유값	10.071	9.323	7.631
설명변량	16.258	15.126	13.562
누적변량	16.258	31.384	45.946
요인명	모-명령적	모-지위지향적	모-인성지향적